

《22번 양은 어디로 갔을까?》 독서지도안



더 이상 양을 셀 수 없다면, 잠은 어떻게 자야 하나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밤을 선물하는 숨바꼭질 그림책!

- 작가_ 마리아 로자리아 콩파논, 안나리타 트란피치 글 | 코린 자네트 그림 | 김보희 옮김
- 출판사_ 풀과바람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오늘도 쉽게 잠들지 못해 양을 세고 있나요? 그런데 왜 잠이 안 오면 양을 세라고 할까요? 잠들고 싶을 때 양을 세는 건 원래 서양에서 건너온 방법이에요. 영어 sleep과 비슷한 발음의 sheep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잠들게 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양들에게 문제가 생겨 더는 양을 셀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2번 양은 어디로 갔을까?》는 사라진 22번 양을 찾느라 벌어지는 좌충우돌 재미있는 소동을 담은 유쾌한 그림책입니다. 저마다 나이도 성격도 매력도 다른 양들이 넘쳐나 독자가 눈을 크게 뜨고 22번 양을 찾도록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자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22번 양을 신나게 찾다 보면 어느새 쿨쿨 편안하게 잠에 빠질 수 있어요.

노에미는 빨리 잠들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양을 세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방법이라고요? 그래도 노에미는 양의 수를 세다 보면 잠들 수 있다고 믿어요. 1번 양, 2번 양, 3번 양, 4번 양... 양들은 각자 가장 자신 있는 자세로 울타리를 넘어요. 앗, 그런데 22번 양이 보이지 않아요! 양을 세던 노에미도 울타리를 넘던 양들도 모두 당황해요. 22번 양이 없으면 23번 양도 울타리를 넘을 수 없거든요. 이러다간 오늘 아이들을 재울 수 없을지 몰라요.

이 책은 마치 숨바꼭질하듯 박진감 넘치는 전개, 다채로운 색감과 아기자기한 패턴의 그림이 독자의 흥미를 이끕니다. 책 곳곳에 등장하는 개성 만점 양들이 웃음을 더하며 집중도를 높여 주죠. 유쾌한 이야기와 익살스러운 그림을 마음껏 즐기다 보면,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즐겁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잠투정이 심하거나 금방 잠들지 않는 아이와 함께 이 책을 읽고 꿈나라로 가 보면 어떨까요?

2. 지도 개요

- 대상 : 유아 3~7세
- 누리과정 연계 :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더불어 생활하기
 - 사회에 관심 가지기
- 예술경험 - 아름다움 찾아보기
 -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자연탐구 - 탐구 과정 즐기기
 -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자연과 더불어 살기

• 지도 요점 :

컴컴한 밤의 세계는 어린이에게는 미지의 공간이므로, 신비롭지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는 때이기에 두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죠.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밤마다 왜 잠들기 어려운지 그 까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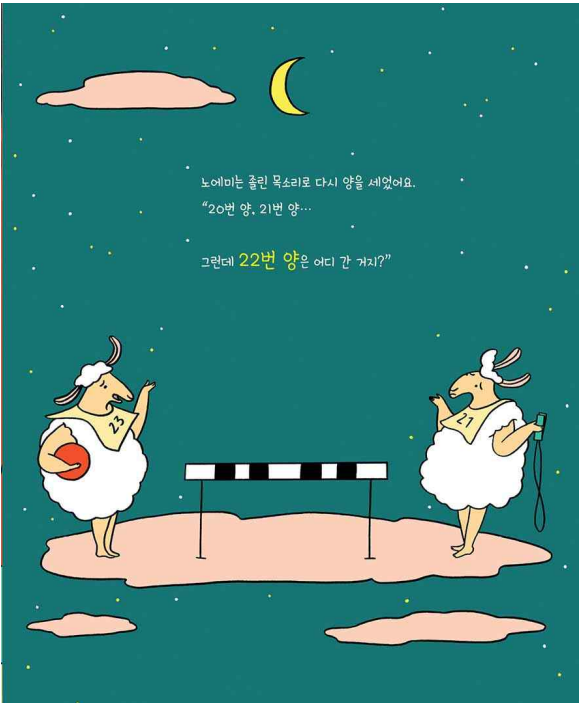
(1) 노에미가 알고 있는, 빨리 잠들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① 양 숫자 세기
- ② 이불 잘 덮기
- ③ 따뜻한 우유 마시기
- ④ 엄마와 수다 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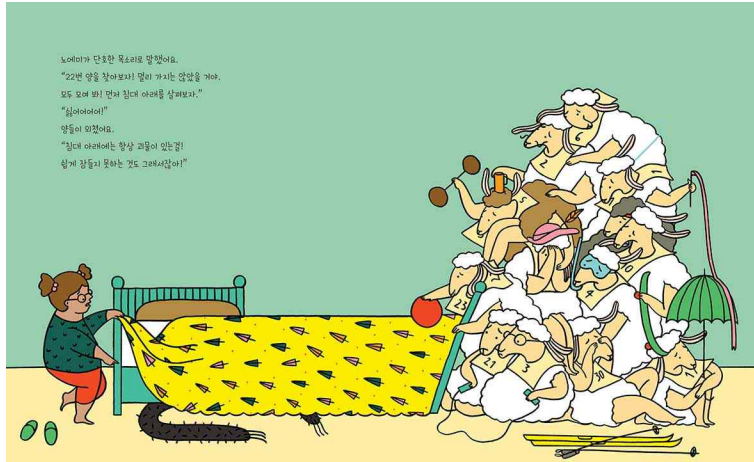
(2) 노에미가 양을 셀 때, 몇 번째 양이 사라졌나요?



- ① 19번
- ② 20번
- ③ 21번
- ④ 22번



(3) 노에미와 양들이 22번 양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본 곳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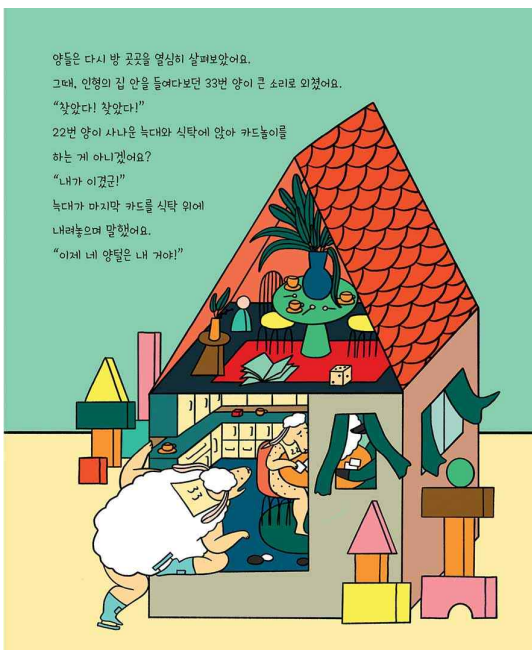
- ① 냉장고 안
- ② 구름 위
- ③ 침대 아래
- ④ 신발장 옆

(4) 22번 양을 찾기 위해 17번 양이 살펴본 곳은 어디인가요?



- ① 장난감 바구니
- ② 물감판
- ③ 책꽂이
- ④ 서커스 텐트

(5) 33번 양은 22번 양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 ① 모자 속
- ② 퍼즐 상자
- ③ 게임 상자
- ④ 인형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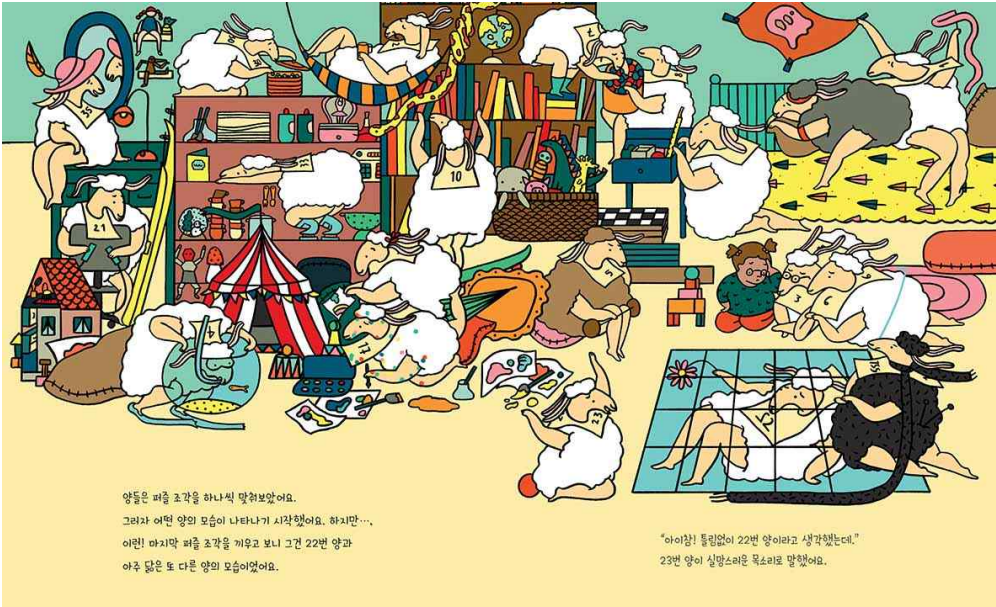
4. 확장활동

(1) 22번 양이 없으면 23번 양도 울타리를 넘을 수 없어요.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양들도 마찬가지로요. 더욱이 아이들도 재울 수 없죠. 이처럼 순서가 중요한 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양들도 당황스러웠어요.
22번 양이 없으면 23번 양도 울타리를 넘을 수 없거든요.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양들도 마찬가지로요.

(2) 옥신각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22번 양 찾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고, 해결 방법도 찾지 못했던 일이 영차영차,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으자 술술 막힘없이 잘 풀어져요. 함께하면 좋은 일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양들은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았어요.
그러자 어떤 양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우고 보니 그건 22번 양과
아주 닮은 또 다른 양의 모습이었어요.

"아이참! 틀림없이 22번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23번 양이 실말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3) 22번 양은 사나운 늑대와 양털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대요. 사나운 늑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던 걸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늑대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 있나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① 양 숫자 세기 | (2) ④ 22번 | (3) ③ 침대 아래 | (4) ② 물감판 | (5) ④ 인형의 집

확장활동

- (1) 버스를 탈 때, 줄을 선 순서대로 타야 해요.
시계는 똑딱똑딱 시간 순서대로 흘러요. 등
- (2) 함께 책을 읽으면 더욱 재미있어요.
축구, 야구 등 운동도 함께하면 더 신나요. 등
- (3) 늑대는 엄마라고 속여 일곱 마리 양을 잡아먹었어요.
늑대는 할머니인 척 빨간 모자를 속였어요. 등